

“정부가 문화전당 위상훼손·조성사업 무력화”

시민단체 “운영조직 축소는 국책사업 포기” 반발 문화창조원 기관 차질... 9월 부분 개관효과도 반감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의 운영조직과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을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문화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문화전당 위상 훼손은 물론 국책현안으로 추진하는 조성사업을 포기하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며 입법을 모았다.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문화전당 콘텐츠 구축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개관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화전당 조직 축소 반발=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문화전당 직제(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성사업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문화전당과 조성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지역과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어 “문화전당 직제(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인해 문화전당의 위상 훼손과 조성사업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도래하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있음을 명백히 밝히며, 지금이라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과 문화전당 사업을 지지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전당 개관 차질 심각=문화전당의 2대 핵심공간인 문화창조원과 민주평화교류원이 개관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

다. 7일 아시아문화개발원에 따르면 문화전당 내 문화창조원의 5개 전시공간 가운데 오는 9월 개관작품을 선보이는 곳은 ‘미술·근대성’을 주제로 한 복합 4관 뿐이다.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시각·영상부문 수석큐레이터인 안젤름 프랑케가 맡고 있는 복합 4관에서는 아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진행됐던 다양한 변화상을 조명하는 전시가 진행된다.

복합 4관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전시공간은 오는 11월까지 개관한다. 전일 문화창조원 예술감독이 교체됨에 따라 전반적인

전시준비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문화창조원의 전시도 크게 축소된다. 애초 성원경 책임큐레이터가 최근 개인사정 등으로 중도 하차함에 따라 복합 5관의 전시 자체가 무산됐다.

◇문화수도 조성사업 ‘발목’=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문화부 직제 개정(안)은 사실상 특별법을 토대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대폭 축소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은 현재 문화전당 건립 등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맡고 있는 추진단의 공무원 정원 40명 가운데 32명을 문화전당을 운영할 정부 조직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배치하는 내용이다. 그 나머지 8명과 추진단의 관할 업무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문화부 문화콘텐츠산업실 내 대중문화산업과로 흡수된다.

이는 문화부 소속 과(課) 단위에서 2023년까지 광주를 7대 문화권으로 나눠 인프라를 확충하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을 맡게 됐다는 얘기다.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의 하나로 문화전당 건립이 포함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실제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투입될 전체예산 5조 3000억원 가운데 문화전당 건립·운영비 1조 9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조 4000억원(국비·시비·민자 포함)이 7대 문화지구 조성사업 등에 투입되어야 하는 재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는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인프라는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콘텐츠(전시·운영 프로그램) 부족과 운영 인력 감축 등으로 개관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역발전위 2기 위원 19명 선임

이원종 위원장 선임 신순호 목포대교수도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의 임기(2년)가 만료됨에 따라 2기 위원 19명을 선임했다. 위원장에는 1기 위원장인 이원종(사진) 전 충북지사가 연임됐다. 민간위원 중에는 신순호 목포대교수와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이 연임됐고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부위원장 등 16명이 새로 선임됐다.

▲이원종 위원장 ▲강기춘 제주발전연구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김동진 통영시장 ▲김선일 대구창조경제



혁신센터장 ▲김인배 한국폴리텍III대학 대학장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창식 한국ICT융합협동조합 이사장 ▲김현숙 전북대 교수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위원장 ▲신순호 목포대 교수 ▲신은주 평택대 교수 ▲이삼걸 대구대 객원교수 ▲이원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이중수 연세대 교수 ▲조명수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최병호 부산대 교수 ▲최형출 충북대 교수 ▲하혜수 지방행정연구

국민대통합위원회 3기 오늘 출범

한광옥 위원장 선임

임향순·김현장 위원 포함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민대통합위원회는 8일 제3기 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다. 제3기 위원회는 한광옥(사진) 위원장을 포함, 민간위원 18명 가운데 대부분인 15명이 연임됐다.

▲한광옥 위원장 ▲김준용 한국녹색도시협회 부이사장 ▲김현장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노승일 부마민주항쟁 부산동지회장 ▲변승일 대한농아인체육연맹 회장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장 ▲신영무 법률



사무소 신·박 대표 변호사 ▲유중근 경원문화재단 이사장 ▲유준경 제10대 독립기념관장 ▲이관도 원음방송 사장 ▲이광자 서울여대 학교법인 정의학원 이사 ▲이일하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 ▲임정희 (새)맑은 청소년 이사장 ▲임향순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중앙회 총재 ▲최희문 소설가 겸 (주)웹스튜디오 대표이사 ▲이순재 가천대 연기예술과 석좌교수 ▲성문대 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 16대 의장 ▲박신언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교구장대리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광주시당 위원장

심판구씨 선출

새누리당 광주시당 새 위원장에 심판구(75) 광주시당 서구갑 당협위원장이 선출됐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7일 운영위원회 의를 열고 단독 등록한 심 당협위원장을 임기 1년의 시장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심 당협위원장은 “변화와 혁신, 화합으로 광주시당을 이끌겠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영입을 확대해 2016년 총선에서 한 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 법정대를 졸업한 심 위원장은 새누리당 전남도당 수석부위원장,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를 역임했으며, (주)광영이앤씨 대표, 베일리 컨벤션(주) 대표를 맡고 있다. /최원일기자 cki@



전남도의회 윤리특위위원장

김광준 의원 선출

전남도의회의는 7일 윤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준 의원(장흥 2·사진)을 위원장에, 같은 당 이경미 의원(여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모두 10명의 의원을 구성했으며, 내년 6월 말까지 1년 동안 ‘전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해 특위에 회부된 의원에 대해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신임 김광준 위원장은 제4대 장흥군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현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호남 KTX 8월부터 증편·증석 운행

주 4회 늘려, 93분 열차도 1일 1회→3회로

박지원·김동철·천정배 의원 등 역할

정부의 수요 예측 부족에 따른 좌석 부족으로 큰 불편을 겪었던 호남 고속철(KTX)이 8월부터 증편·증석 운행한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김동철,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에 따르면 코레일이 호남 고속철 운행횟수 및 공급좌석 확대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열차운행 조정안을 확정,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각 의원이선 전한 열차운행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중 44회인 호남 KTX가 48회로 주 4회 증편한다.

또한, 공급 좌석을 확대하기 위해 ‘KTX 산천’(363석~410석)을 차량 및 좌석 수가 많은 ‘KTX’(931석)로 대체 교체키로 했다. 이에 따라 931석 규모의 ‘KTX’ 열차는 주중에는 8회에서 16회로, 주말에는 12회에서 16회로 확대 운행된다. 특히 저속철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용산~송정’ 최단시간 93분 열차 운행을 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개통한 호남 KTX는 당국의 수요 예측의 실패로 열차 좌석수가 부족해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물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열차 증편과 함께 요금 인하를 계속 요구해왔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북 국회의원 호남고속철 대책 간담회’를 열어 “호남선 수요가 예측치보다 8.3% 늘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증편 및 증차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KTX 호남선 2단계 노선이 지역 주민의 의견대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요금인하 문제 및 소음, 안전 대책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조직개편안 확정

광주시가 지난 대응체계 확립 등 신규 행정수요 대처 등을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2실 9국 1본부 체계에서 시민안전실이 신설되는 등 3실 8국 1본부 체제로 바뀌었다. 과(課)는 11관, 5담당관, 42과로 3개 과가 늘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수정·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집행부가 신설하기로 한 재난안전실 명칭을 도민안전실로, 도민안전실 산하 재난대응과 이름을 사회재난과로 변경했다. /최희종·윤현석기자 chae@

JTCC GOLF 2015 골프아카데미 왕중왕전 메인 협찬사

오픈기념 100구좌 한정판매상품 마감임박!

“모든분들이 만족하십니다!”

NO.1 골프선불카드 에스골프 선불카드

전국 300곳 골프장 (대전, 충남 명문골프장)포함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지원

에스골프 홍보모델 최홍림

광주시사OPEN기념 (한정100구좌) 입금계좌 : 국민은행 659001-04-042641 (주)삼성회원권

| 구분 | 가입금액 | 회원구성 | 이용기간 | 연 이용횟수 | 월 이용횟수 | 공통사항 |
|-------|---------|--------|------|----------------|------------------------|-----------------------|
| S-싱글 | 350만원 | 기명 1인 | 3년 | 총 40회 (년 15회) | 주중 3회 또는 주중 1회, 주말 1회 | 그린피(세금포함)+카트비 전액 무료지원 |
| S-트윈 | 670만원 | 무기명 2인 | 3년 | 총 80회 (년 30회) | 주중 6회 또는 주중 2회, 주말 2회 | |
| S-VIP | 1,320만원 | 무기명 4인 | 3년 | 총 160회 (년 60회) | 주중 12회 또는 주중 4회, 주말 4회 | |

*VAT포함 금액입니다.

SG에스골프만의 혜택

1. 전국 골프장 이용가능
2. 비즈니스 활용(무기명 4인~최고 만족도)
3. 라운드 후 식음료, 캐디비만 내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광주시사)

062) 415 - 8811

본사 서울 1566-9799

지사 부산 (경남,부산지역) 051)916-9700
 경남 (경남,부산지역) 051)916-7070
 대전 (충남,대전지역) 042)320-7800
 대구 (경북,대구지역) 053)248-6666
 울산 (경남,부산지역) 052)260-4575

Famile co

SAMSUNG MEMBERSHIP
삼성회원권

BOOKING G B MALL M S
 골프부킹사이트
 www.bookingmall.co.kr

SG 에스골프

BOOKING H T MALLS C G
 호텔/콘도예약사이트
 www.bookingmalls.com

한진관광 (타워벨리스점)
 http://tp.kaitour.com

검색창에 **부킹몰** 을 치세요.
 http://www.bookingmall.co.kr